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리 병 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조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모든 부문이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전진가》의 노래높이 혁명적인 랑만과 희열에 넘쳐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심장에 불을 달아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명작들을 많이 내놓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인민들이 거부하는 졸작이 아니라 생활과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명작,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명작창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면 위훈의 금문자로 빛나는 그 자랑스런 대가들마다에 언제나 위대한 혁명정신이 맥박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창조된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자는 혁명정신을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항일혁명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창조된 전시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전시문학예술은 조국수호 정신을 구현하는것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극 기여하였고 천리마시대문학예술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에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속에서 5대혁명가극과 5대혁명연극이 창조되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화면에 정중히 모신 혁명영화창조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을 비롯한 수령형상작품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1990년대의 적기가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하여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승리의 길》, 《우리는 잊지 않으리》, 《우리 집은 군인가정》 등의 가요들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 《총검을 들고》 등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게 펼쳐보인 시대의 명작들이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수호정신, 필승의 신념과 의지, 래일에 대한 락관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창조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만리마시대의 현실에 뛰어들어 시대와 숨결을 같이해나감으로써 진실하면서도 아름다운 인간형상으로 인민이 사랑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여야 한다.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명작, 력작들을 창작창조하는것이다.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세기 70년대 중엽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첫 수령형상영화 《누리에 붙는 불》을 내놓은데 이어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 혁명영화 《조선의 별》 그리고 그 련속편으로 창작된 《민족의 태양》 등 수많은 수령형상혁명영화를 창작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우리 인민들이 감명깊게 받아안게 하였으며 수령형상혁명영화창작창조의 고귀한 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영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영화를 창작창조하는 과정에 쌓은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새 세기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수형형상혁명영화창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소설부문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과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에 담은 혁명소설을 창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에 담은 장편소설을 창작하여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고 주체혁명문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수 있다.

시가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송가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창조함으로써 이 땅위에 수령영생의 송가가 세세년년 즐기치게 올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주체의 시가문학분야에서는 수령영생위업에 이바지하는 시가문학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은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영생하시고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영생하시며 인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된 열렬한 그리움으로 영생하신다는 사상을 구현한 《우리는 맹세한다》,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를 비롯한 수령영생시가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문학예술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었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의 정,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실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은 수령영생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만민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력사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뜨겁게 아로새겨주는 이 노래, 진정 이 땅우에 천만년, 억만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하신다는 드눌지 않는 신념의 뿌리를 억척으로 다져주는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현하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이 세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문학예술창조의 보다 높은 경지를 펼쳐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형상적으로 구현한 문학예술작품창작전투를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영생송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와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지나온 력사만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 단순히 위인의 영생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그 위대한 영생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깊이있는 철학적사색속에 노래한 여기에 이 명곡들이 수령영생송가의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할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과 인민의 운명, 조국의 만년대계를 하나의 념으로, 영원한 피줄기로 결합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기록하신 충정의 세계가 낳은 전인민적인 태양송가이다.

현시기 우리 시가문학발전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상을 노래한 시가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칭송한 시가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는것은 수령송가창작을 주선으로 하는 주체시가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지난 시기 《발걸음》, 《**김정은**장군 찬가》, 《우리 원수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인민의 환희》, 《인정의 세계》, 《뜨거운 정》을 비롯한 가요들과 서사시 《태양의 하늘》을 비롯한 서사시, 서정서사시, 서정시들이 창작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세계를 깊은 정서속에 노래하였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마땅히 혁명적인 창작창조본때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열풍이 몰아치는 이 땅우에 수령칭송, 수령흠모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하며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폭넓게 펼쳐보인 큰 규모형식의 서사시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극문학분야와 무대예술부문에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매한 덕성과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가극, 무용, 예술소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만리마대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미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숭엄하면서도, 두분의 체취가 생동하게 느껴질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늘 가슴에 안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명작, 력작들을 창작창조하는것을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데서 기본핵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서 편이어 태어나는 새로운 전형단위들과 만리마선구자들을 원형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명작으로 창작창조하여 내놓는것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옳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펼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시대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자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리마시대의 거세찬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고 폭풍쳐 내달리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높뛰는 창작적충동을 안고 뛰어들어야 한다.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만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는 만리마기수》와 같은 노래들이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명곡으로 될수 있었던것은 창작가들이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력사, 헌신의 세계를 뜨겁게 느껴안았기때문이다.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가 그렇듯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었던것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치녀어머니》로 온 세상에 내세워주신 시대의 전형을 원형으로 하여 주인공이 지닌 인생관과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생동한 개성으로 진실하게 전형화하였기때문이다.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문학예술의 형상원천으로 되고있는 전형단위들과 시대적전형들을 수많이 배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바로 우리의 문학예술에서 형상하여야 할 원형들이다.

문제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리마시대의 이 거세찬 격류에 뛰어들어 시대적전형들의 생활과 투쟁을 어떻게 뜨겁게 공감하고 체험하는가 하는데 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만리마시대의 벽찬 숨결에 자신들의 심장의 박동을 따라세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들을 내놓음으로써 천만군민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고 형상수법도 대담하게 개척하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로서 그것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오늘의 만리마시대현실은 문학예술작품에 만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담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그렇듯 만사람의 심금을 들어잡는것은 소재선택과 연주형식, 편곡과 악기편성, 음악형상의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의 리용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독창적인 것으로 일관된 땃쟁이공연이기때문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만리마시대정신과 그 발전추세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들고나온 예술활동의 본보기로 된다.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들에서는 모란봉악단공연을 본보기로 하여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식과 경직을 배격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특히 영화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형식과 내용, 형상수법을 새롭게 개척하며 우리 식의 활극영화도 만들고 서정적인 영화, 고전극적인 영화도 만들며 력사물만화영화도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활극영화, 사람들에게 고상한 정서를 주고 혁명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창조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영화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활극영화뿐아니라 서정적인 영화와 고전극적인 영화, 력사물만화영화를 비롯하여 시대발전추세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형상수법들을 대담하게 개척할수 있는 방도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음악예술이나 영화예술뿐아니라 연극, 가극, 무용, 예술소품, 미술 등 예술분야와 소설, 시가, 영화문학, 희곡, 가극문학 등 문학분야들에서도 만리마시대인간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형상수법들을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시대의 명작, 력작으로서의 사상예술적품격을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사상전선의 나팔수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만리마시대, 명작, 사회주의문학예술